

WITH POSCO
BUSINESS | SOCIETY | PEOPLE

기업시민
실천활동
사례
모음집

POSCO M-Tech

INTERNATIONAL

E&C

CHEMICAL

ICT

기업시민연구소

CONTENTS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실천활동 인터뷰

03	포스코
10	포스코인터내셔널
17	포스코건설
24	포스코케미칼
31	포스코ICT
38	포스코엔텍

기업시민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46	실천사례 공모전 개요
48	포스코 사례
51	그룹사 사례
54	해외법인 사례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실천활동 인터뷰

2020년 3월~12월,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포스코 및 그룹사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Business/Society/People분야 별 기업시민 실천사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활동,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 등)

posco

회사연혁

[1968]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정부주도)
[1973] 포항 1기 설비 종합준공
[1983] 포항 4기 설비 종합준공
[1987] 광양 1기 설비 종합준공
[1992] 광양 4기 설비 종합준공
[1993] 신포스코 창조 선포
[2000] 민영화 완료
[2002] 주식회사 포스코(사명변경)
[2019]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

국내사무소

포항(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서울사무소

주요사업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주요생산제품

열연, 후판, 선재, 냉연, 용융아연도금, 전기아연도금,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티타늄 등

국내그룹사

- 글로벌인프라부문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 엔투비, 포스코휴먼스,
PNR, 부산E&E
- 철강부문
포스코강판, SNNC, 포스코알텍
- 신성장부문
포스코케미칼, 피엠씨텍
- 비영리 및 지원법인
RIST,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인재창조원,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웰,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1%나눔재단,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해외법인

대표법인 9개, 생산법인 21개, 가공센터 26개, 기타 법인 10개, 사무소 5개

기업시민 전담부서

[CEO직속]-[기업시민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철강 기업으로, 1968년 4월 1일 산업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안고 제철보국 이념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제철보국 이념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포스코는, 2018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선포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해 신뢰와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포스코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공생가치를 창출하여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를 통해 임직원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경영활동의 준거로 삼아 기업시민을 내재화하고, 체질화하여 조직 문화로 정착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Q_ 포스코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 산업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안고, 제철보국 이념 아래 설립된 글로벌 철강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연간 약 4,100만 톤의 조강생산체제를 갖추었고, 세계 53개국에서 다양한 강종의 철강 제품 및 소재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만 3천여 명의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포스코는 WSD(World Steel Dynamics)¹에서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¹ WSD :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글로벌 철강전문 분석기관으로 매년 Steel Success Strategies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주요 철강사에 대해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함

지난 50년간 제철보국 이념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포스코는, 2018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선포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해 신뢰와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생가치 창출

포스코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향하는 기업시민의 실천은 '공생가치'의 창출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공생가치란,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를 뜻합니다. 협력사·고객사·공급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생가치 창출을 통한 생태계 관점 발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포스코의 지향점입니다.





포스맥 배리어(PosMAC Barrier)

특히 본업 차원에서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개발하는 일들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물질인 납 사용을 줄인 흑연폐삭강 개발, PosMAC 소재를 활용한 가로수 보호대, 포스코강판과 협업하여 개발한 친환경 컬러강판을 쉐 스타벅스에 납품한 사례 등이 이러한 활동의 대표사례입니다.

기업시민 동반성장 7대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동반성장 활동을 'Change Up Together'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시민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업시민 동반성장 7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동반성장 활동은 ①개방형 소싱, ②하도급상생결제 시스템, ③성과공유확대, ④포스코형 생산성 혁신, ⑤혁신성장지원단, ⑥포유드림 잡매칭, ⑦기업시민 프렌즈라는 7대 브

- 2 철강슬래그 : 철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쇳물과 함께 생성되는 부산물로, 1,500℃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 후 냉각된 물질
- 3 트리톤 : 트리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의 이름이나, 포스코는 철강슬래그로 만든 인공어초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트리톤 어초는 한국 정부의 환경 안정성과 해양 바이오 식품 안전성 평가에서 검증되어, 현재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일반 어초로 지정되어 있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

목표 협력기업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

추가치 "Change Up(業) Together!"

<p>더 공정하게 Fair Together</p> <p>활동방향 Open&Fair</p> <p>공정한 거래기회 부여, 공정거래 관행 정립</p>	<p>더 가치있게 Value Together</p> <p>활동방향 Innovation</p> <p>안전·환경을 고려하는 혁신성장 지원</p>	<p>더 가까이 Care Together</p> <p>활동방향 Community</p> <p>상생협력 활동으로 지역 문제 해결 동참</p>
--	--	---

- 7대 프로그램
- 1. 개방형 소싱(e-Catalog)
 - 2. 하도급상생결제 시스템
 - 3. 성과 공유확대(BS 2.0)
 - 4. 포스코형 생산성 혁신
 - 5. 혁신성장지원단
 - 6. 포유드림 잡매칭
 - 7. 기업시민 프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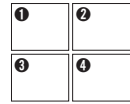
기업시민 동반성장 프로그램

랜드 프로그램으로, 상호 호혜적인 공생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공급망(Supply Chain) 전 차원에서, 환경·안전·지역사회공헌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다 숲(Marine Foorest)’ 조성

Society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오염, 저출산,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기업차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철강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치있게 활용하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철강슬래그(제철 부산물)²로 만든 트리톤(Triton)³ 어초로 ‘바다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트리톤 바다숲 조성기술은 포스코와 RIST(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포항산업과학연구원)를 비롯한 여러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09년부터 동해와 남해를 비롯한 갯녹음 확산 지



- ① 인공어초 트리톤 해조류 이식
- ② 인공어초 트리톤 설치
- ③ 트리톤 수중 안착
- ④ 해조류 생장 및 어장 형성

역에 실제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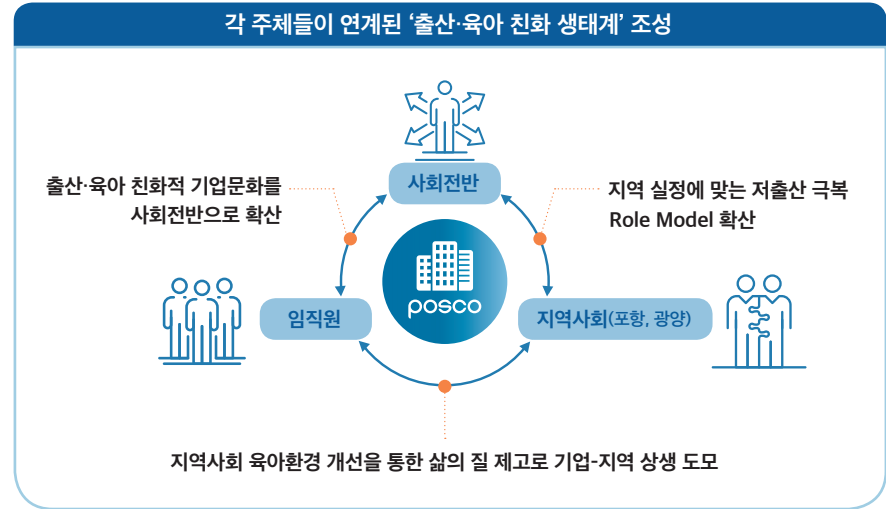
2019년 포스코는 여러 해안도시 30여 개 해역에 6,559개 트리톤을 설치했으며, 2020년에는 울릉도 및 독도 인근에 바다 숲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에 기여함은 물론, 블루카본(Blue Carbon)⁴ 효과의 창출로 탄소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법 Role Model 제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2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 해법 Role Model'을 제시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타(他)기업과 기관의 동참까지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도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을 포함과 광양

4 블루카본 : 해양생태계의 해초와 퇴적물로 활성화된 탄소저거원과 저장고를 일컫는 용어



포스코형 저출산 문제해결 모델(안)

에 설립하여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를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심포지엄(2020년 7월) 개최 및 인구교육 교재/과제 개발 지원, 그리고 저출산 다큐 제작(EBS, 2020년 11월)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플랫폼(Venture Platform)' 구축

포스코는 벤처밸리 조성과 투자로 구성되는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성장사업 발



'체인지업 그라운드 센터' 개관

굴의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벤처투자가 활발한 유망분야에 포스코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RIST 및 포항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에 투자하여 청년들의 창업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포스코는 민간기업에서는 최초로 신생 벤처 육성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 Up Ground)⁵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

포스코는 청년 인재 육성 및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기업실무와 관련된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IT실무 교육에 관한 ‘청년 AI·빅데이터 아카데미’,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❶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 취업준비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업실무 등 실질적 역량강화 교육
- ❷ 청년 AI·빅데이터 아카데미 : AI·Big Data 취창업 지망생 대상 IT실무 교육
- ❸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 예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교육



포스코 청년 취·창업 교육 ‘포유드림’



5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 Up Ground)는 “미래를 체인지하는 창업 및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라운드”를 의미하며, 체인지업(Change Up)의 철자 중 ‘e’를 제외하면 창업(Chang Up)이라고도 읽힘

2020년 5월 기준 포유드림 프로그램 수료자는 1,307명이며, 그 중 40%에 해당하는 520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5,5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과 광양에 아트홀, 미술관, 갤러리, 그리고 역사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첫 공연을 올린 ‘포스코 콘서트’는 연간 약 10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728명의 관객에게 11회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이 자신의 급여 1%를 기부하여 운영되는 비영리재단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는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만남이 예술이 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와 영향력 있는 채널을 활용해 장애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People 분야의 대상은 포스코그룹 임직원이며,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를 통해 임직원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People 분야의 활동들은 직원들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체화하고 실천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People 분야 활동의 첫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들의 위험개소를 로봇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개선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내 헬기를 활용한 사내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도 마련하여, 현장 임직원, 협력사 및 공급사 사고 시 업무용 헬기를 활용해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간업무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에 헬기 활용).



출처 : <http://m.egbn.kr/view.php?id=131889>,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265>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운영 중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관리, 직원 간 협업 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노사가 함께하는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상주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8-17시),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등을 활성화하였고, 포스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휴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발표에 발맞추어, 포스코에서도 2020년 12월 11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포스코도 기업시민으로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하고 있는 활동은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CCUS(이산화탄소 자원화), 수소환원 공법 등 생산공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획기적 R&D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산물 자원화 확대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다 숲 조성, 규산질 비료 활용, 폐 폐각 원료화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산림 복원 등의 활동들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직원들도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사용, 로컬푸드 이용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넘어, 기업시민으로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부터는 'Reduce CO₂, Save Tomorrow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STS 소재로 제작된 텀블러 활용을 통한 CO₂ 저감 생활을 모든 임직원에게 습관화하고, 사내 공용 차량의 경우 점진적으로 친환경 경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CO₂ 저감 활동을 위해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코로나 19 위기상황은 포스코만의 위기가 아닌, 함께 이겨나가야 할 위기임을 인식하고 협력사, 고객사, 공급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이겨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파트너사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어려웠던 시기에 파트너사, 지역사회, 해외 사업장 등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동반성장 관점에서 중소 파트너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활동들도 올해 더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대구·경북 지역에 크게 유행하였던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



코로나19 긴급구호물품 지원

금을 전달하고, 지친 의료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생필품, 방역용품, 영양제 등을 담은 ‘조금 특별한 응원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은 글로벌 모범시민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능봉사, 기부 등 다양한 기업시민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선포를 통해 우리 포스코가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점과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해졌으며, 임직원이 하나되어 사회에 기여해 나가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철보국 이념 하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기업시민으로서 본업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것을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개념, 방향점, 실천원칙들을 알려주는 기업시민의 나침반인 ‘기업시민헌장’을 2019년 7월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알렸으며, 2020년 7월에는 임직원 기업시민헌장 실천의 지도가 되어줄 CCMS(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를 제정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목표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시민과 같은 사회적 역할 수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시민이 포스코의 고유명사로 인식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보통명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인터뷰 일시: 2020.12.18.(금)
 인터뷰 장소: 서면인터뷰*
 인터뷰어: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이창현(포스코 기업시민실)

※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조치로 서면인터뷰로 진행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회사연혁

[1967] 대우실업 → [1982] (주)대우(사명변경)
[2000] (주)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
[2010] 포스코그룹사로 편입
[2017] 포스코P&S 철강사업부문 흡수합병 [2019] 포스코인터내셔널(사명 변경)

국내사무소

송도(본사), 서울

해외법인·지사

45개국 105개 법인 및 지사

주요사업

- 철강
철강제품 수출·입, 삼국간 무역, 내수거래
원료에서 가공, 유통까지 철강사업 전 과정의 밸류체인 통합 구축
- 에너지
보유 운영광구 및 신규광구의 탐사·개발·생산, Gas Value Chain 사업
- 식량
주곡, 유지, 부원료 수입 및 삼국간 거래
산지에서의 수매부터 보관, 운송, 가공에 이르는 식량 사업 밸류체인 구축
- 화학
석유화학 및 화섬수지 분야 전세계 공급
- 부품소재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공급
비철금속의 수출, 수입, 삼국간 무역
- 인프라
사업간접자본사업과 산업플랜트분야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수행사

기업시민 전담부서

[사장직속]-[기업시민사무국]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Moving Forward Together)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기존 트레이딩 사업을 넘어 새로운 미래사업을 창출하는 종합사업회사로서,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10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 상사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유망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선제적인 ESG 경영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미래인재 육성', '보건의료 지원', '배려계층 보호' 활동을 비롯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린 '프로보노(Pro Bono) 봉사단'을 운영하여 국내 사회적 기업들에게 법무, 전략, 재무, 마케팅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워라밸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와 세대간 소통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환경적 니즈에 맞추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Q_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67년 '대우실업'으로 시작하여 1982년 대우실업이 (주)대우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 부문을 전담하게 되었고, 2000년 (주)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된 종합상사로, '마당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거래처들을 소개하여 수출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었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10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전통적인 무역 상사의 영역을 넘어, 비즈니스 전 과정에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포스코P&S 철강



사업부문 흡수합병을 통해 그룹 내 국내외 철강 유통채널을 일원화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표 비즈니스 분야 기업시민 활동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에 있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과의 협업을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털'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 수요가 발굴 및 판로개척을 돕는 '수출지원' 활동이며, 두 번째가 레퍼런스(reference)형 역량 공유의 '역량성장 지원' 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케이스(case)별 니즈 파악을 통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활동입니다.

• 수출지원

수출지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종합상사의 업(業)의 특성을 활용한 수출지원 활동으로 수년간 쌓아온 회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임직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회사도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상생형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7월 기존 사회공헌활동인 기부 형태로 진행했던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신규 발굴한 콩고민주공화국 소재 수요자에게 연결하여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역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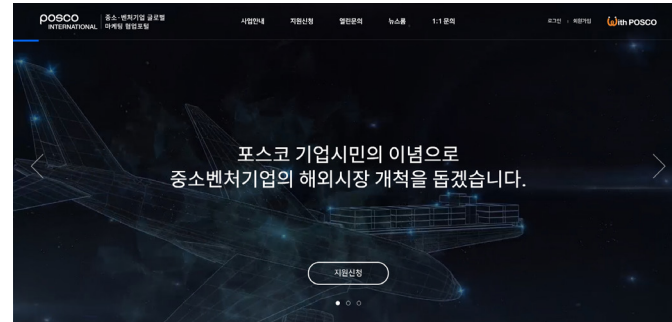
역량성장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Lesson & Learnt(가르침과 배움) 노하우를 워크숍 등을 통해 유망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전수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육성을 돕고 회사는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아, 결국 양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지원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E&P(Exploration & Production, 탐사 및 생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협업사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사업장인 미얀마 가스전의 현지 개보수 업체와 국내 유망한 중소협력사간 조인트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사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전 세계에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며, 대표적인 예로 단백질 기반 백신 개발 회사인 바이오엠프의 해외 인증 및 사업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 1호 '바이오엠프'과의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마케팅 협업포털 홈페이지

현재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200여 곳이며, 그 중 사업진행이 된 곳은 60곳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마케팅 협업 풀(pool)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부 대외기관들과의 네트워킹 및 관(官)·산(産)·학(學)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협업을 위한 풀을 넓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업과 맞는 유망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업과 매치되지 않아 협업을 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션은 그룹사의 디벨로퍼(developer)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도 해외 사업에 진출할 그룹사가 있다면 함께 협업할 예정이며, 그룹사와 함께 글로벌 마케팅 협업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후 그 실천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좋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신성장사업을 발굴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 고취는 물론, 고객들에게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해외 지사법인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찾을 예정입니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린 ‘프로보노(Pro Bono) 봉사단’

소사이어터 분야 대표 활동으로는 ‘프로보노(Pro Bono) 봉사단’ 활동이 있습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살려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20년 5월에 발족된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로보노 봉사단은 회사의 직무 전문성을 살려 국내 사회적 기업들에게 법무, 전략, 재무, 마케팅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당 기업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1기 봉사단은 총 21명의 프로보노 봉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 제작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폐자원 활용 제품 생산 및 유통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함께 멘토링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규모가 다양하고 창업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보노 봉사단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다른 부서 또는 지사의 구성원도 함께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Moving Forward Together’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사회

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미래인재 육성’, ‘보건의료 지원’, ‘배려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

배려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배려계층 아동을 위한 체험 위주 예체능 교실 지원,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중도입국 청소년 : 타국에서 언어와 사회화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친 후 청소년기 혹은 학령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보건의료 지원

우즈베키스탄 소외계층을 위한 안보건 증진 활동, 인도네시아 팜 농장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 의료 환경 개선,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등



배려계층 보호

입양대기 영유아를 위한 기초양육물품 지원 및 손수건 만들기, 인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 및 운동회 지원, 소외아동을 위한 목도리 만들기 등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로보노 봉사단



포스코인터내셔널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미래인재육성 활동 중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새로 형성된 가족 내에서의 갈등, 언어 장벽,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 일대는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아 인천에서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는 이들의 국적취득과 한국어 능력검정시험(TOPIK)을 돕고, 급식비를 지원하며, 주기적인 정서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워라밸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5년 송도로 사옥을 옮기면서 제1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제2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임직원의 보육 수요를 100% 충족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임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제2직장어린이집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이 리버스 멘토링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전경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피플 분야의 또다른 실천 활동으로 '리버스 멘토링'이 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미래 회사의 주역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회사의 90년대생 직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경영진과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의 21%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멘토)과 임원(멘티)이 매칭되어 MBTI 성격유형검사, Ground Rule 정립,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멘토/멘티 활동을 수립하고 추진한 후 SNS에 활동내역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 활동은 마무리 됩니다. 본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좀 더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팜사업 환경사회정책' 선제적으로 이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식량자원 사업에 주력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에 2011년 법인을 설립해 2019년 기준 연간 약 8만 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세계적인 환경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사업을 글로벌 Top 수준의 비즈니스 상생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환경사회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진출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요구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뜻하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과 이행계획을 선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은 환경보존 및 관리측면에서 기존 환경정책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농장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을 약속한 것이 특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보존 가치구역, 고탄소 저장지역, 이탄지역(Peat: 석탄 이전 단계의 유기물 퇴적층) 등의 개발을 금지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기업 최초로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을 선언했으며, 2020년 12월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를 뜻하는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로부터 친환경 팜유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책임경영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인천남동구 소재 ‘새꿈학교’, 지역복지회관 등 여러 기관에 마스크, 손 세정제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매출급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 타워-송도 입주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할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비즈니스 파트너, 수요가, 공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구호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저회 해외사업장이 있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에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와 더불어 지역사회 병원의 의료지원팀이 사용할 수 있는 방호복 등을 조속히 지원하여 기업시민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기업차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손수건을 제작하고 운동화를 색칠하여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운동화는 350여명의 필리핀과 미얀마 아동들에게 보내지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후원금은 입양대기 아동들의 기초양육물품, 생활용품과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에 쓰였습니다. 이러한 기부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재택 사회공헌(가족참여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주요 사업과 더불어 유망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코로나19 진단 키트 미얀마에 전달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경영, 사회 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 3개 항목을 경영전략 전 단계에 적용함과 더불어,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보고서 발간과 ESG평가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비재무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하는 2020년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2019년에 이어 ESG부문 대상(大賞)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후 직원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회사에서 추진

하는 사업(특히, 농업관련)이 ESG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시민은 임직원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저탄소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좋은 기회라 여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사업실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과 협업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도 점차 친환경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니즈에 맞추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일시: 2020.11.19.(목)

인터뷰 장소: 포스코인터내셔널(송도)

인터뷰어: 손예령(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박정빈, 권태연, 김상영(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

posco

포스코건설

회사연혁

거양개발주식회사+포스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의 엔지니어링본부·건설본부



[1994] 포스코개발주식회사 (POSEC)
[2002] 포스코건설(사명변경)
[2017]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합병'

국내사무소

포항 본사, 송도 사무소, 광양 사무소

해외법인·지사

해외법인 10개, 지사 6개

국내그룹사

- 플랜트 제철 분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건설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등 해외 프로젝트 수행.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비철 분야의 산업 플랜트 분야로 확대
- 에너지 분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남미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 영역까지 시장 확대
- 인프라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다양한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안산선과 서부 내륙 고속도로, GTX 등 국내 최대 민자 사업 참여
- 융복합 환경 설비 분야
국내최초 국제입찰을 통한 유럽 건설시장 진출
- 건축 분야
대형 PF 사업(송도국제도시, 동탄 메타폴리스), 도시개발 사업에서 선두주자
초고층 빌딩 시공실적 국내 최다 보유
'더샵'을 리뉴얼하여 프리미엄 주거문화 선도

기업시민 전담부서

[기업시민사무국]

같이 짓는 가치를 짓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POSCO E&C)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포항·광양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며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출범한 종합건설회사로서, 1994년 12월 글로벌 E&C기업을 지향하며 출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건설과정에 BIM, IPD 등의 Smart Construction을 도입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고객과 같이 짓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같이 짓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기업시민 실천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고, 도시재생 및 취약계층 주거인프라 개선과 글로벌 모범 시민 양성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같이 짓는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구축하고, 공감과 신뢰의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창출해나가고자 합니다.

Q_ 포스코건설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포항·광양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며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출범한 종합건설회사로서, 1994년 12월 글로벌 E&C기업을 지향하며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등의 플랜트 분야와 대규모 SOC사업,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 그리고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건설회사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플랜트,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건설사 TOP 5로 도약하였으며,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은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10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라는 기업시민 슬로건 하에 고객과 같이 짓는 상생의 가치, 지역사회와 같이 짓는 나눔의 가치, 그리고 구성원과 같이 짓는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을 통한 미래 기술가치 창출

포스코건설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건설인력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어려운 건설 환경에서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e-con, Pre-fab, Smart Tool 등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말그대로 '똑똑한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모든 건축 정보를 통합한 3차원 디지털 모델링 기술인 'BIM'을 기반으로 하여, Pre-con(Pre-construction)²이라는 가상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상시공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간섭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즉, 설계가 완료된 후, Pre-fab(Pre-fabrication)³라는 기법을 통해, 공장에서 가능한 많은 시설들과



스마트 컨스트럭션

- 1 스마트 컨스트럭션 : 건설 전 과정을 Digital Data 기반의 BIM으로 통합 관리하고, 가상시공, 건설자재/설비 모듈화, 시공 지능화와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하여 건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프로세스
- 2 Pre-con : 건축물 시공 전에 시공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 3 Pre-fab : 미리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것

구조물들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시공을 단축했을 때 장점은 제일 먼저 근로자들의 안전이 담보가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Pre-fab 공법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공기(工期)를 단축함으로써 건축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계약방식을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발주 방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발주사, 설계사, 시공사들이 한 팀이 되어 앞서 언급한 Pre-con을 통해서 생기는 이윤과 리스크를 공동분배하여 공생가치를 IPD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이익을 함께 나눠가지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공생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의 한 방법으로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혁신성장 지원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때 시공품질의 저하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에서는 중소기업이 적정수준의 수익을 확보하고, 함께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 안전시설 투자 개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안정적인 재정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520억원 규모의 상



협력사와의 상생

생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협력사 지원을 위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자체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더불어 상생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인프라 및 노하우를 통해 중소협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안전·직무 교육 분야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전략 전 단계에서 ESG 경영 도입

오늘날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서 포스코건설은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에서는 2020년 초부터 RM(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단계에 ESG 검토를 도입하여 프로젝트 별로 ESG를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챌린지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2020년 말까지 ESG에 관련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를 중장기적으로 설정을 하여, 어떻게 실현하고 모니터링을 할 지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전략 전 단계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ESG 경영을 도입하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건설 선도

건설현장은 아무래도 비산먼지나 소음이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 이슈는 건설현장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친환경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저감시키고자 다중 환경관리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저감 공법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하여 페로니켈 슬래그를 원재료로 하는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하여 시멘트 원료 및 골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및 취약계층 주거인프라 개선

포스코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누전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저희가 미리 방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동안 2,100세대의 가정 혹은 복지시설을 개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120세대에 대한 개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도시재생에도 관심을 가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새뜰 마을사업 중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일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정부시, 서울여자대학교,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그리고 포스코건설까지 민·관·학(民·官·學)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유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원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도 같이 호흡하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영역에서도 주거를 개선하는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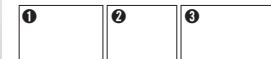
글로벌 모범시민 양성

포스코의 기업시민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모범시민 양성과 연계하여, 글로벌 E&C 모범시민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활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장 인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설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인도네시아, 2020년 방글라데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 인근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의 인력난 수급에 기여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축화가와 같이 짓는 미소(장애인 예술인 자립 지원)

건설사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장관리입니다. 그런데 '삭막하게 느껴지는 현장에 어떻게 말랑말랑한 감성을 입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스트리트 갤러리(Street Gallery)라



- ① 화재예방 주거 환경개선 활동
- ② 취업 멘토링
- ③ 구축화가와 같이 짓는 미소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낸 작가들의 철학과 마음가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펜스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면 지나가 시던 분들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삭막한 작업환경이 아니라 아름다운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어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한, 유명한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이나 전시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스트리트 갤러리에 구축화가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구축화와 같이 짓는 미소>라는 전시회를 2020년 7월 개최하였고, 2020년 8월에는 서울에 있는 더샵 갤러리에서 2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 구축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전입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임직원, 협력사의 근로자분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연장선상에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를 도입하여, 국내 건설사 중에는 처음으로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현장에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은 기존 현장에 존재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안전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관리감독자 패드를 중심으로 관리되었던 기존 현장에 밀폐공간 가스 모니터링, 현장 출입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생가능한 사고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건설의 현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파급력을 키우기 위하여, 소방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타워 크레인에 있는 초고화질 CCTV라든지, 드론, 고압탈수설비 등 현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설비들을 이용하여 화재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워 화재상황을 실시간으로 인근 소방서로 공유하거나, 긴급하게 진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탈수장비나 차량, 물탱크 등을 동원하여 직접 진압작업까지 참여하는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세이프티는 우리 임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짐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도 함께 유도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

공감과 신뢰로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 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사장님과 특정 세대들 간 소통하는 소통



포스코건설-소방청,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 발대식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이 제도 개선에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밀레니얼 TF’ 활동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긍정적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칭찬쿠폰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건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포스코건설에서는 환경과 공존하는 건설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회사는 2020년 초부터 ESG 경영을 경영 전반에 도입하였으며, ESG 중 E, 환경분야에서 환경 경영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친환경 건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요소들로 만든 먼지 억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오/폐수 저감을 위한 환경 패키지를 각 현장마다 적용하여, 쾌적한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들이 환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포스코건설과 푸른아시아가 함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연극이나 창의, 독서, 마술과 같은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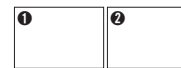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지역 공원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공원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위생용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공동생활 가정 청소년들에게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코로나 예방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드림키트’(Dream Kit)라고 이름 지은 이 키트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줄어든 청소년을 위해 각 공동생활가정센터장이 추천한 153종 200여 권의 책도 담아, 마음의 양식까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선포되기 전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왔었지만,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선포되고 나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 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② 코로나19 긴급구호물품 지원

파트너와 지역사회, 임직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Go the Extra Mile'의 자세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포스코건설 고유의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임직원, 파트너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짓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일시: 2020.07.29.(수)

인터뷰 장소: 포스코건설(송도)

인터뷰어: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박철호, 황보승, 나영훈, 박혜린,
김민경, 송재경, 최경중(포스코건설)

POSCO

포스코케미칼

회사연혁

- [1963] 삼화화학 주식회사 설립(내화물제조 부문)
- [1971] 포항축로 주식회사 설립(로재정비 부문)
- [1994] 포철로재 주식회사로 합병(제조, 정비 부문 합병)
- [2019] 포스코케미칼(사명변경), 포스코ESM 합병(그룹 내 에너지소재 사업 통합)

국내사무소

포항(본사), 광양, 구미, 세종, 서울

해외법인

인도네시아, 중국

주요사업

- 내화물 생산 및 엔지니어링
내화물 원료 및 정형·부정형 내화물 생산
산업 플랜트 내화물 엔지니어링
- 생석회
포항·광양 제철소 생석회 공급
- 석탄화학 및 탄소소재
콜타르 고부가가치화
석탄화학과 탄소소재 소재 원료 생산
- 에너지소재
2차전지용 양극재, 음극재 공급
- 제철소 로재시공
제철소의 고로와 전로, 전기로 등 철과 비철을 만드는 공정상의 각종 로에 들어가는
내화물 축조·정비·보수

기업시민 전담부서

[사장직속]-[기업시민사무국]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POSCO CHEMICAL)은 국내 최고의 내화물 및 축로 전문 회사로, 지금까지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과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인 2차전지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며 에너지 소재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동반성장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공급사와 공생펀드 조성을 통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생형 축로기능인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의 에너지소재 업(業)의 특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푸른꿈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LED를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아동 특식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한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물론, 첨단기술 도입 및 스마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개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청림동 세탁소커피에 대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케미칼은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Q_ 포스코케미칼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화학과 소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971년 포항축로 주식회사로 출발한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50여년간 국내 최고의 내화물 및 축로 전문 회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어 기초산업소재 분야에서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 독창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석회를 공급하고, 콜타르와 조경유 등 생산 기반이 되는 석탄화학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지금까지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과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인 2차전지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며 에너지 소재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동반성장활동 추진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를 원가 절감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비전 하에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스코케미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생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협력사 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혁신성장 지원단 : 부서별 역량, 인프라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기업의 성장을 지원
 - 컨설팅 : 기술 컨설팅 및 시험분석 지원, QSS혁신활동, 안전/에너지 분야 등
 - 교육 : 협력사 축로공 양성교육, 특허 및 지식재산권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
- ② 공급사 친화형 BS+ 성과공유제 운영
 - 포스코케미칼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
- ③ 대금 제대로 주기 대금 제대로 주기

- 3대 원칙 준수(① 제때주기, ② 제값주기, ③ 하도급 상생결제)

-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지급 범위 확대 : 건축·축로공사 공급사, 기계설비공사 공급사 이 외에도 동반성장 문화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파트너스 데이' 등을 통해 협력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시민 프렌즈'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사와 공생펀드 조성을 통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공생가치 창출을 위하여 양극재사업 파트너인 中 화유코발트와 1:1 매칭으로 공생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양사는 매년 각 미화 2만불씩을 출연해 4만불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양국의 사회공헌사업에 1년씩 번갈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수도 시설이 충분치 않아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양극재 광양공장 인근에 송



기업시민 프렌즈 - 협력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도 섬마을에 우물시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화유코발트가 중국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배터리 소재분야의 사업협력을 기반으로, 공생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상생형 축로기능인 양성교육 운영

포스코케미칼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생형 축로 기능인 양성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축로교육장에서 축로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협력사와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처음 운영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생의 80%가 취업했으며, 그중 일부는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축적한 축로 기술을 인정받아 당사와 축로 협력사에 취업했습니다. 특히, 교육생 선발 시 보호종료예정아동, 고령 취업준비생 등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피업종으로 인식된 축로 업계의 이미지 변신을 주도하면서 축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축로 협력사 역시 해당 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여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내화물 시공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상생형 축로기능인 양성교육

푸른꿈 환경학교·장학금

푸른꿈 환경학교는 포스코케미칼의 에너지소재 업(業)의 특성과 연계한 환경·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의 소외 계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꿈 장학금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자기개발 목적의 장학금 지원, 학습 멘토링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한 포스코케미칼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며, 앞으로 에너지소재 리딩 컴퍼니로 변화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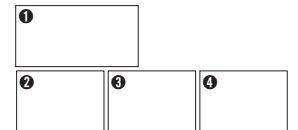


태양광 LED를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포스코케미칼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문덕초등학교에 태양광 LED를 활용한 안전 표지판을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판이 없는 곳에 신규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형 삼각 표지판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표지판을 교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표지판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설치한 표지판은 태양광 집적판과 리튬 이차전지를 활용하여 낮 동안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어두운 야간에 활용하여 LED를 발광시키는 시스템으로 어두운 밤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비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통학에 도움을 주는 형광 안전우산을 제작(2,300개)하여 지곡초, 문덕초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안전지도 및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 했습니다.

시설아동 특식지원사업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식사 및 간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단가에 맞춰진 반복되는 식단 구성으로 균형잡힌 영양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은 아이들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항·광양·구미·세종에 위치한 52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총 1,475명



- ① 푸른꿈 장학금
- ② 푸른꿈 환경학교
- ③ 안전 우산 지원
- ④ 시설아동 특식지원



① ② 포스코케미칼 본사 내 '늘푸른솔 어린이집'
 ③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포스코케미칼 직원들

의 아동들에게 특별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특식비를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쳐있는 아동들의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포스코케미칼은 1000인 이상 대기업 최초로 24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을 달성했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화합하고 신뢰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포스코 그룹 공동 상생형 어린이집에도 참여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도입 및 스마트 인프라 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로 부서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완형 웨어러블(Wearable) 장비를 도입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제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비관리시스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더욱 스마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직무 전문성 및 역량 향상 지원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하나의 회사 문화로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업무와 자기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 직무 관련 전문 사내 강의를 개설하여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케미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포스코케미칼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부 별 업무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배출 부문, 열 부문, 전력 부문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정량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열

부문의 경우 에너지 원단위 효율화, LNG로의 연료 대체, 소성로 폐열회수 등의 관리를 추진했으며, 전력 부문에서는 인버터 설치, 고효율 팬, 펌프, 압축기 설치, LED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챔피언 인증제도’,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우수기업 선정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 강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상 리사이클링 전구체 원료 사용기술, 흑연계 음극재 대체를 위한 기술 등 국내 이차전지 소재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배터리 재생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 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하여 배터리 재활용 트렌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농가를 위해 회사에서 포항 시금치

와 부추 소비촉진행사를 열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청림 지역에서 재배한 시금치, 부추를 홍보해 구매를 촉진하고, 회사는 행사에 참여한 직원에게 시금치와 부추를 각각 매칭 구매해 추가로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판매 기간 동안 직원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약 1,600만원 상당의 농가 매출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 광양, 구미, 세종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지원 물품도 기증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였습니다.

협력사 계약대금 조기 집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협력작업 및 구매 대금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하고, 협력사의 2·3차 거래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2020년 연말 한시적으로 자금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봉사활동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핸즈온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핸즈온 봉사활동이란, 기부물품을 봉사자가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2020년에는 총 2회차에 걸쳐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포스코케미칼 양극재광양공장 전경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비대면 핸즈온 봉사활동



도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아기 우주복 만들기 봉사활동: 임직원 105명 참여, 약 200벌의 우주복 제작, 육아 필수품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전달

* 2회차 아기 턱받이 만들기 봉사활동: 임직원 150명 참여, 200개의 턱받이를 제작 및 기부. NGO기관의 턱받이의 수량만큼 아기 손수건을 1:1 매칭 지원받아 기부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포스코케미칼은 기업시민 경영 선포 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즉, 일방향 지원의 개념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복지시설이나 지정단체에 일시적인 기부금, 연말연시나 명절 등 해당 시즌을 고려한 이벤트성의 기부금 출현 등의 형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사회공헌활동에 반영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생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청림동 세탁소커피*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세탁소커피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최상위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세탁소 커피 2호점을 새롭게 창업하여



세탁소커피

세탁소커피 지원사업은 포항 본사가 위치한 청림동에 거주중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취약 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물론, 연오랑 세오녀 둘레길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됨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후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마음가짐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도입하던 시점에 포스코 그룹 내 양극재 사업을 운영하던 포스코ESM을 합병하였고, 사명도 포스코케미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의 회사로 재탄생하고 도약하는 과정에서 기업시민이라는 공통의 이념을 함께 내재화하고, 여러 실천활동에 다함께 참여하면서 빠르게 조직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기업시민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함께 토론폰도 하면서 '1인 1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이 거창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일시: 2020.03.31.(수)
 인터뷰 장소: 포스코케미칼(포항)
 인터뷰어: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임정호, 정동민, 이지영(포스코케미칼)

posco

포스코ICT

회사연혁

- POSCON** [1979] 효삼콘트롤정비(주) 설립
[1986] 제철전기콘트롤(주) POSCO자본참여
[1993] (주) POSCON(사명 변경)
- POSDATA** [1989] (주)POSDATA 설립
[2000] 코스닥상장
- [2010] POSCON-POSDATA 통합법인 '포스코ICT' 출범

국내사무소

포항(본사), 판교, 광양

해외법인

중국(장가항), 인도네시아(질레곤), 베트남(호치민), 브라질(상파울루)

주요사업

- Smart Factory
스마트기술 기반으로 생산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시로 최적의 제어 지원
- EIC Engineering
EIC(Electricity, Instrumentation, computer)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 IT Service
AI, 빅데이터 등 IT Service 제공
- Logistics & BHS(Baggage Handling System)
인천국제공항 수하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의 통합물류센터 구축 서비스 제공
- Home & City
스마트홈 시스템 및 교통 시스템 구축 등 도시 전반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IXOTIVE 솔루션
IT(정보기술)와 OT(운영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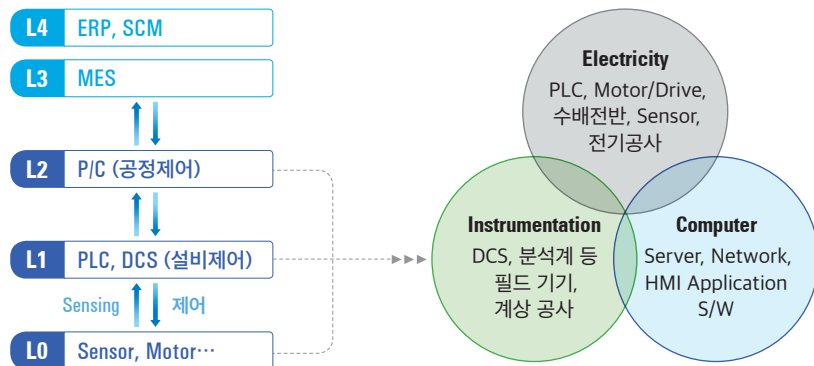
기업시민 전담부서

[기업시민사무국]

IT와 EIC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포스코ICT

포스코ICT는 IT와 EIC(엔지니어링) 기술을 융합한 컨버전스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Smart Factory, EIC Engineering, IT Service, Logistics & BHS, IXOTIVE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IT/EIC 전문기술과 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시민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협력사 및 중소기업에 교육하거나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보유 기술특허 중 일부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함으로써 함께 공생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IT 역량을 활용한 'Smart School' 운영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PC수리 및 전기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전문역량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RPA 챗봇을 도입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꿈을 실현해주는 'Dreams Come True' 사업,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체인지리더 캠페인', '감사나눔'을 통한 기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저감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현장 굴뚝 대기오염 감시솔루션 'TMS' 개발,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포스코ICT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Q_ 포스코ICT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부탁드립니다.



포스코ICT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EIC(Electricity, Instrumentation, computer) 엔지니어링 기술을 융합한 컨버전스 기술을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조현장의 설비들을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로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변화된 환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적용하여 생산, 품질, 에너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AI·Big Data·Io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여, 솔루션들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 '아이소티브(IXOTIVE)'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ICT는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감동하고, 직원이 행복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IXOTIVE 포스코ICT 솔루션 통합 브랜드

- PosFrame 생산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AI를 활용하여 최적의 제어를 하는 스마트플랫폼
- PosMaster 산업현장 자동화시스템에서 핵심기능인 PLC, HMI를 통합하는 IPC기반 제어 시스템
- PosDrive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공냉식 AC드라이브 솔루션
- PoShield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PLC와 제어시스템 간 주고받는 제어명령의 이상징후를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여 운영자에게 알려 외부침입사고를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
- IXOSafety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IoT, AI, Big Data 등 스마트 기술 적용 산업안전 솔루션
- Smart CCTV CCTV에 AI 영상인식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제공
- A.WORKS 사무자동화를 위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 CREDEX AI 모델 분석을 통해 기업 신용상태 변화를 실시간 감지, 부실 발생 위험을 사

전에 알려주는 솔루션

- Facero 얼굴 이미지 탐지 후 등록 사진과 비교 및 식별하여, 출입관리, 신용인증, 발열체크 등 사회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얼굴인식 솔루션
- VoRIS AI 기술로 오디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통합 솔루션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IXOTIVE website. The header includes 'Solutions', 'Brand Story', 'Blog', and 'Customer Service'.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IXOTIVE logo in the center, surrounded by a blue, glowing circular graphic. Below the logo, there is a short description in Korean: 'IXOTIVE는 IT와 OT가 융합되어 탄생한 솔루션을 의미하는 포스코ICT의 솔루션 통합 브랜드입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중소파트너사와 공생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포스코ICT가 가진 IT와 EIC 전문기술이나 IT융합 솔루션 등 업(業)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교육제공 등을 통하여 협력사와 함께 공생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회사가 보유한 솔루션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 임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포스코ICT의 원천 솔루션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어 상호 Win-Win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력사에 경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진단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특허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자사가 보유한 기술 특허 중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을 철수한 특허들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충·방전 제어장

치, 배가스 유해물질 건식 제거장치, 휴대용 단말 보안관리 등 에너지 및 환경, IT분야의 솔루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특허들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신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됨은 물론, 함께 공생가치를 창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IT/EIC 전문기술과 업을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 Smart School, VoRIS, Facero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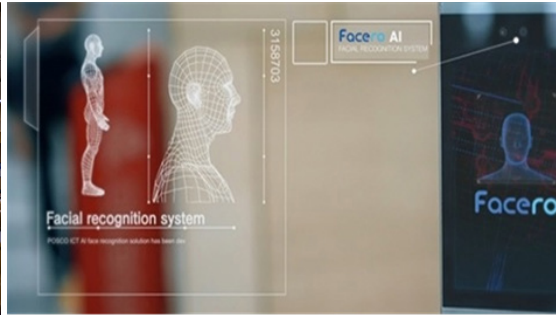
IT/EIC 전문기술과 업을 기반으로 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Smart School이 있습니다. Smart School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상에 따라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Creative Smart School'은 회사 업무의 특성과 직원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코딩 전문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빅데이터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고교생 청소년들의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함께 코딩하고 우수작을 시상하는 'AI Challenge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및 신개념 일자리 창출을 위한 'Challenge Smart School'은 이공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 전수' 사업을 진행하여 약 500명 정도 교육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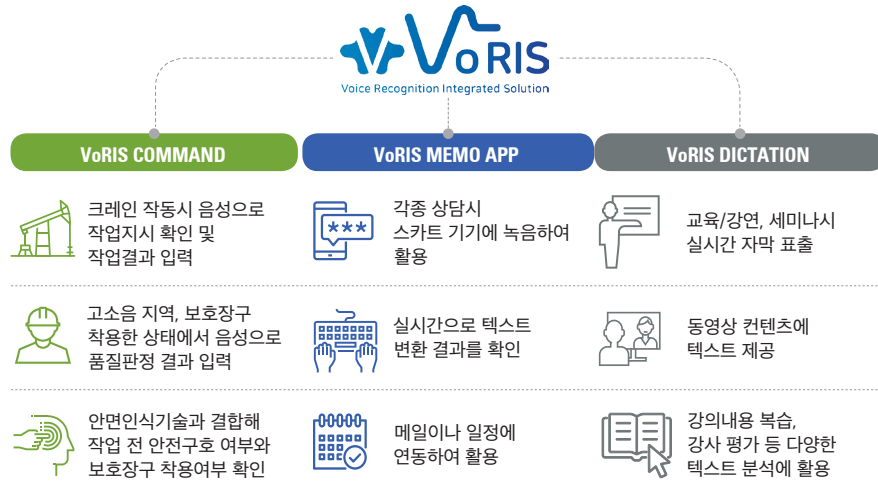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기술전수 교육

AI Challenge 경진대회



①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② 전국 장애인·청소년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③ AI 안전인식 Facero 솔루션 ④ Dreams Come True



음성인식 서비스 'VoRIS'

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종료 청년을 대상으로 'ICT 청년 Stand UP' 지원사업을 추진, IT·EIC 분야로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사내 직원의 직무 멘토링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편견과 장애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일자리로서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사업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년 20명 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전국 장애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스코ICT가 보유한 기술을 협력사·중소기업 대상으로 전수하는 'Collaboration Smart Schoo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Smart Solution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전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한 또다른 사례로 VoRIS(보리스)가 있습니다. VoRIS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현장에서의 안전·제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일상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ICT에서는 청각장애인 100명에게 무상으로 이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I 안전인식 기술인 Facero 솔루션을 활용한 '실종자 찾기' 서비스를 경찰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안하고 국제치안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자사 솔루션을 사회공헌 실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나눔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꿈을 실현하는 'Dreams Come True' 포스코 그룹은 2018년부터 연말 '작은 나눔'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5만원씩 지원하여 기부를 실천하는 나눔캠페인(現, 마이 리틀 채리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ICT는 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첫해부터, 보다 의미있게 나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방식으

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어린부모세대를 위한 마더박스와 푸드박스를 전달하였고, 2020년에는 Dreams Come True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의 꿈 실현을 위해 직원 단체펀딩을 진행하여 장애인 시집출간 및 북콘서트 지원, 아동 공부방 마련, 예·체능 재능지원, 노인 바리스타 교육 및 장비지원 등 총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을 위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 및 RPA 챗봇 도입

포스코ICT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자격취득 지원, 핵심기술 전문가 인증제도 시행, 전사 차원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챗봇을 업무

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로봇의 도입을 통해, 반복적이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단순 업무는 로봇에게 맡기고, 직원들은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체인지 리더 캠페인’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체인지 리더 캠페인(일명: 체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리더 캠페인에는 지시/보고, 회의, 소통, 공유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든 리더들이 지켜야 할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일과 메신저는 확인 즉시 피드백하여 퇴근 전 ‘읽지 않은 메일함’을 0건으로 만들자는 ‘인박스제로(Inbox Zero)’ 캠페인, 업무기획 시 리더와 담당직원이 끝 그림을 먼저 함께 그려보는 ‘블랭크 리포트(Blank Report)’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리더들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와 창의기반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차량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 운영

포스코ICT에서는 공휴일 동안 회사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업무용 차량을 직원들에게 렌트해주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EP에서 내려받아 이용 10일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1일기준 2만원으로 외부 렌트카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직원이 운전할 경우 보험적용도 가능해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수익금은 1%나눔재단과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되며,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자사 직원만 이용가능했으나, 이후 우수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확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RPA 챗봇 소개 ② VoRIS 활용교육 ③ 카셰어링 서비스



‘감사나눔’을 통한 기부

평소 고마웠던 직원에게 감사함을 구체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는 ‘감사나눔(Easy Thanks Plane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사 메시지와 함께 작은 마음의 선물인 음료쿠폰 1장을 선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은 쿠폰을 모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쿠폰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활용품

지원하는 ‘핑크박스’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핑크박스 속에는 여성 위생용품과 파우치,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 6개월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푸드박스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례는 SBS ‘희망TV’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로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나눔을 통해 직원들간의 신뢰와 동료애,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로 연계되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산업현장의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한 곳에서 통합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제조, 건설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모든 작업자와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된 안전관리 활동들을 표준화하여 패키지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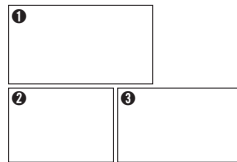
점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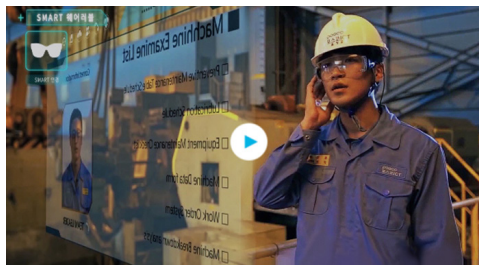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ICT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산업현장 굴뚝 대기오염 감시솔루션 ‘TMS’ 개발

포스코ICT는 산업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는 TMS(Tele 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 시스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산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하여, 환경부 산하 전국 4개 권역관제센터로 전송합니다. TMS 솔루션은 두 개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먼저 Data Logger(자료수집기)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기로부터 5초 주기로 수집·보정·저장하고 상위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FEP(Front End Processor, 자료전송장치)는 다수의 Data Logger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 관제센터 및 사업장 내 환경관리 통합시스템에 전송하며, 원격으로 Date Logger의 실시간 운영상태와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TMS 솔루션은 2020년 8월 한국환경공단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8개 시험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포스코 제철소를 대상으로 TMS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TMS 설치가 필요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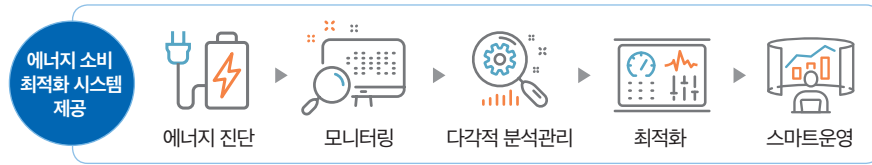


- ① 감사나눔을 통한 핑크박스 기부
- ②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③ 산업현장 굴뚝 대기오염 감시솔루션



포스코 그룹 대상 에너지 세이빙 사업 진행

포스코ICT는 현장의 전기사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절감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전기사용률을 줄이고, 간접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력수요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은 물론,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코로나블루 케어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사 지원활동 등 추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혹은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와 우울을 의미하는 '블루'를 결합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는데요. 이에 포스코ICT에서는 직원과 직원 가족을 위해 코로나 블루를 케어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판교사옥에 위치한 심리상담실과 포항, 광양, 서울 등 각 지역에 연계된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들도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원하는 경우 비대면 방식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무실 방역, 마스크 지급, 무료 독감 접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헌혈자 감소 및 혈액 부족사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전 지역 직원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케어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포스코ICT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후 기업시민 이해도 제고 및 내재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 문화를 습관화하여 직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인1실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業과 직원 전문역량 및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업시민 실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PC수리 및 전기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양지역의 경우 '스마트팜' 수리 지원 등 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솔루션을 협력사에 공유하여 신규사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포항 및 광양지역의 이공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실습장치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회사의 역량을 활용한 Smart School을 운영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장애인, 그리고 협력사 및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회사의 業과 관련된 기술을 교육 및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포스코ICT는 포스코 그룹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일시: 2020.11.24.(화)
 인터뷰 장소: 포스코ICT(판교)
 인터뷰어: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윤수걸, 손강호, 고광훈(포스코 ICT 기업시민사무국)

posco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회사연혁	[1973] (주)삼정강업 [2001] (주)삼정피엔에이(사명변경) [2005] 포스코그룹사로 편입 [2011] (주)포스코엠텍(사명변경)
국내사무소	포항(본사), 광양, 서울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포장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열연, 냉연, STS제품 등을 포장 포항, 광양제철소 27개 포장라인 운영• 철강부원료 철강부원료인 제강용 알루미눔 탈산제 (잉곳, 펠렛, 미니펠렛)를 생산하여 포스코 및 국내외 제강사에 공급• 포장엔지니어링 포스코 및 해외제철소 대상 철강포장 자동화 설비 공급• 위탁운영 포스코 합금철 공장 위탁 운영 FeMn(광양), Cu판재(강릉)
기업시민 전담부서	[사장직속]-[기업시민섹션]

포스코엠텍,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동행’

포스코엠텍(POSCO M-Tech)은 철강포장 및 소재 전문기업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철강제품 포장, 포장설비 엔지니어링, 철강부원료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동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業 기반의 새로운 동반가치 창출을 통한 이해관계자와 동행을 위하여, 지역 내 AI Scrap(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 포스코엠텍 임직원, 그리고 그룹사 및 다른 기관 등과 협업하여 자원 재활용 및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슈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웃는 세상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위하여, W.I.T.H 행복나눔 카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임직원 및 취약계층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놀이공간 및 학습 환경 조성은 물론, 장학사업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임직원과의 동행을 위하여 다양한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행 주체를 회사 전체에서 임직원 개개인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활동 플랫폼’ 조성을 통하여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참여활동이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여, 이를 포스코엠텍의 기업시민으로 문화화하고자 합니다.

Q_ 포스코엠텍의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엠텍은 철강포장 및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철강제품 포장, 포장설비 엔지니어링, 철강부원료 생산, 그리고 위탁운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철강포장 로봇인 스트랩마스터(StrapMaster)를 개발하여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작업라인을 기존 대비 1/3수준으로 감소시켜 작업의 효율성과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설비 R&D 및 판매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알루미늄 탈산제 최대 생산과 판매체제 유지, 소결망간광 기술개발과 용융망간 공급 증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Q_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AI Scrap(알루미늄 스크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 및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방식에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엠텍에서는 지역 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포스코엠텍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이라는 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AI Scrap 수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가,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 및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AI Scrap 재활용 활동을 진행하며 수거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캔 보관방법 및 수거장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체에 수거용품(대규모업체: 캔 분리수거함, 소규모업체: 캔 전용수거함, 비닐 백 지원)을 지급하여 일괄 수거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AI Scrap 재활용 활동은 알루미늄 공장의 원가절감은 물론,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과 지역 내 안정적인 원료수급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시민의식 고취 및 환경보호를 통한 회사 이미 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활용 캠페인



AI Scrap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 선순환체계 프로세스

AI 취급업체 이슈 해결을 통한 생태계 강건화 도모

포스코엔텍은 폐차장, 샷시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AI Scrap을 포스코엔텍의 공급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알루미늄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폐차장은 판로확보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였고, 공급사는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스코엔텍에서도 전체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미개발 영역에서 신규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여 사용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 산업 생태계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알루미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함께 진행한 ‘헌후라이팬 교체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 중인 낡은 후라이팬을 삼성디지털프라자 포항본점에서 신제품으로 교환(선착순 350개)해준 행사로, 이를 통해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지점 및 브랜드 홍보와 고객유치,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포스코엔텍은 원료확보 및 구매원가 절감을 통해 공생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헌후라이팬 교체이벤트



폐차장-공급사-포스코엔텍 AI Scrap 프로세스

Q_ 소사이어티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W.I.T.H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통한 임직원 및 취약계층 복리후생 증진

포스코엔텍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W.I.T.H 행복나눔 카드’를 제작하여 임직원,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동일한 혜택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카드는 포스코엔텍이 사전에 제휴를 맺은 지역 업체에서 활용 가능하며, 멤버십 카드와 같이 소지시 할인 혜택과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뒷면에는 기업시민 1인 1실천 아이디어를 작성하도록 하여,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엔텍의 복지카드 및 법인카드 모두 W.I.T.H 행복나눔 카드로 바꾸고, 카드 마일리지 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불우이웃 및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엔텍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를 원하는 그룹사나 다른 기업 및 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W.I.T.H 행복나눔카드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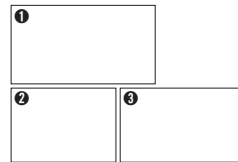
미래세대를 위한 놀이공간·학습환경 조성 및 장학사업 운영

Society 분야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은 ‘미래세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담도담 쉼터 조성, 도시공원숲 조성, 장학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담도담 쉼터 조성 사

업은 낙후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꿈나무들의 독서 및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도담도담 쉼터' 1호는 지난 2019년 포항시와 협업하여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 조성하였고, 2020년에는 포항 오천지역의 아동센터 내에 '도담도담 쉼터' 2호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 책임기를 낫설어 했던 아이가 쉼터를 통해 독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감사편지가 전해져 사업추진의 의미와 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담도담 쉼터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운 아이들이 다시 지역의 미래로 자라나 또 다른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공간 외에도 학교, 유치원 및 주거단지 근거리에 위치한 도심 속 공원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공원숲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포항시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없는 도시공원 숲' 1호를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포스코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의 복합기능을 더한 '친환경에너지 도시공원숲' 2호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숲 조성은 철강 포장업을 수행함에 따라 포장지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책임을 느끼



- ① 도담도담 쉼터
- ② 도담도담 쉼터 봉사활동
- ③ 도시공원숲 2호



며, 나무심기를 통해 녹색공간 보존 및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등 환경보호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시공원숲 2호는 그룹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그룹사간 협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회적 Impact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장학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최대 6년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_ 피플 분야에서 어떠한 기업시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발적 '나눔활동 플랫폼' 조성

포스코엔텍에서는 '엠텍형(型)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하여, 모든 임직원이 기부대상과 방식을 직접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눔활동 플랫폼'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엠텍형 탄소포인트제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포스코엔텍 임직원들이 ① 자동차탄소포인트, ② 위워크, ③ AI 재활용이라는 3가지 활동 중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한 활동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활동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나눔약속'을 통해 나눔활동(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코엔텍에서 지원하는 10명의 장학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장배경 및 스토리를 담은 공감카드를 읽고, 후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스토리에 희망

	기부자(임직원)	수혜자	이해관계자(협업)
교육기회 제공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미지 고취 •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 • 임직원 자부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에 집중 • 적극적 꿈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단체 • 아동보호기관 등
학습놀이공간 조성 (도담도담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미지 고취 • 지역 내 아동공간 부족 해결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안전한 학습 및 놀이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 NGO 단체 • 지역아동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습놀이공간 조성

메세지와 함께 개인별로 적합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직원 개개인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주체가 되고, 직원이 직접 후원을 희망하는 기부처를 선택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나아가 이러한 활동의 선순환이 임직원뿐만 아니라 함께 웃는 지역사회와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임직원이 기업시민 실천의 주체로서 내가 할 수



엠텍형 탄소포인트제 3가지 활동

- 자동차탄소포인트 : 주행거리 감축하기(100km/1000원)
- 위워크 : 1주일에 7만보 달성하기(7만보/주 x 인센티브(1000원))
- AI 재활용 : 알루미늄 분리수거하기(1kg/1000원)



위워크 운동



AI Scrap 재활용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행 주체를 회사 전체에서 임직원 개인으로 확대 및 실행력 강화

포스코엠텍에서는 회사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시민 실천활동에 임직원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담도담 씬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직원들이 이 활동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업 네이밍을 공모하여 선정된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씬터가 조성된 이후에는 미래세대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원들이 직접 도서관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숲이 조성된 이후에는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AI Scrap 재활용을 위해 직원들이 회사나 가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을 모아 제출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 실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쉽게 공감하고

Monthly Index			
봉사시간(인/회)	8.4	▲	+0.5
Car 탄소포인트 인입(명)	311	-	-
위워크 참여인원(명)	519	-	-
AI재활용 참여 실적(kg)	8,761	▲	+502
W.I.T.H. 봉사(명/회)	4.46	▼	-14.21

미래세대를 위한 도담도담 씬터 2호 준공
 학습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도담도담 씬터 2호의 준공 과정과 조성 후 모습 공유

2011월 포항 오천행복한울스쿨 지역아동센터 내에 2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도담도담 씬터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놀이와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개선하여 학습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회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도담도담 씬터가 만들어지기까지... 6개월간의 여정

<p>지역 조사(6-9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한 지역 전수 조사 실시</p>	<p>장소 확정 및 컨설팅 회의(9-10월) 아이들이 원하고 또 필요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무자 회의</p>	<p>공사 시작(10-11월)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곳으로의 변화 시작 *포항시 환경개선비 연계, 공사범위 확대</p>
--	--	---

멘솔리 리포트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엔텍에서는 그룹사 중 최초로 먼슬리 리포트(Monthly Report)를 발간하여, 매월 말 포스코엔텍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슬리 리포트는 기업시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 및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시민의 실천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툴(tool)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시민 실천활동과 관련하여 상시 정보공유 및 임직원과의 쌍방향(Two-way) 소통을 위해 WITH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직원 참여 이벤트를 시행하거나 실천활동에 대한 주간실적을 공유하는 등 통합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회사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직원을 '기업시민 실천왕'으로 선정하여 분기 1회 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실천왕은 개인 차원의 기업시민 실천 성과와 더불어 회사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한 직원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우수 활동직원을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프로젝트'

포스코엔텍에서는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3가지 '소통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코로나 19가 완화된 이후 추진할 예정). 먼저, '퇴근길 동행'은 임직원 및 직책자가 현장직원의 퇴근길을 동행하여 일상에서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한끼해요'는 직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원가족과 함께 저녁 한끼를 나누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요'는 직원가족을 초청하여, 부부 간 혹은 부모 자식 간 갈등해결 및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하여 가족애(愛) 강화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_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코엔텍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엔텍형 탄소포인트제 참여 실적(2020년 9월 말 기준)

-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 : 577,210km
- 폐알루미늄 누적 수거량 : 6,345kg
- 위워크(We-Walk) 활동 : 487,416천보

참여실적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

- CO₂ 절감량 : 294,527kg(나무 44,768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일)

포스코엔텍에서는 Biz와 연계하여 환경친화적 포장자재 사용 확대, FeMn 생산을 위한 저가 환원제 발굴 등 친환경 조업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AI Scrap 재활용 활성화 방안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환경적 이슈 해결에 동참함과 동시에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임직원 참여 활동인 '엔텍형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그룹사들과 연계하여 지역 내 알루미늄 재활용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 유도, 인식 전환, CO₂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에도 환경 이슈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Q_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해외공급사로부터 생필품 부족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공급사 10곳에 화장지 및 물티슈 등 구호물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요. 물품을 받은 해외공급사에서 감사편지와 함께 신규 공급계약 시 구매단가를 톤(ton)당 \$20 인하해 줌과 동시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감사의 마음 전달해왔습니다. 즉, 작은 선행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씻기가 습관화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손씻기 교육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 스탬프를 제작하여 포항, 강릉 지역

의 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유치원에서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편지와 함께 손씻기 활동 영상을 전달해와 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 나가 모두가 함께 웃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나눔약속 성과

- 직원참여율 : 85.3%
- 기부금액 : 10,16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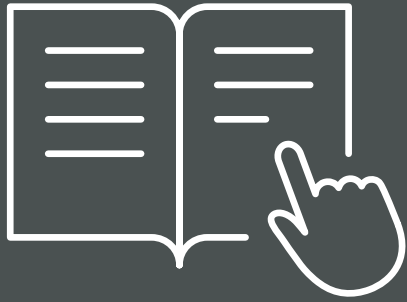
Q_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후, 기업시민 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시민이 기존의 사회공헌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시민 경영이념 확산을 위해 부서별 '기업시민 커뮤니케이터'를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기업시민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시민 활동에 동참함은 물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시민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엔텍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시민 활동에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인터뷰 일시: 2020.11.02.(월)
 인터뷰 장소: 포스코엔텍(포항)
 인터뷰어: 손예령(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인터뷰이: 황재우, 류성진, 김유정, 이윤지
 (포스코엔텍 기업시민섹션)





기업시민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기업시민 문화화를 위한 넛지(Nudge)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11월 진행된 '기업시민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실천활동과 관련된 CCMS 내용도 함께 소개해놓았습니다.

배경



- 기업시민 문화화를 위한 넛지(Nudge)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공모전(2020년 5월)에 이어 실천사례에 대한 공모전(2020년 10~11월) 진행
- 공모전 응모 시, 실천활동 관련 CCMS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임직원들이 CCMS에 관심을 갖고 업무와 일상에 활용하도록 유도
- 기업시민 실천에 대한 임직원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선정 및 발표하여 기업시민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장을 마련

공모 건수



- 전체 공모 건수 총 6,348건
- 포스코 2,604건(41%), 그룹사 3,538건(56%), 해외법인 206건(3%)
 - 분야별로는 Business 1,552건(24%), Society 3,171건(50%), People 1,625건(26%)

	포스코	그룹사	해외법인	합계
Business	760	732	60	1,552
Society	1,065	1,995	111	3,171
People	779	811	35	1,625
합계	2,604	3,538	206	6,348
B/S/P별 분포				
세부내역	본사 313, 포항 新 1,247, 광양 新 954, 연구소 90건 접수	인터내셔널 362, 건설 472, 케미칼 372, 에너지 400, ICT 124, 강판 61, SPS 126, SNNC 165, 엠텍 495, 터미널 16, O&M 353, A&C 88, PNR 101, 엔투비 120, 휴먼스 85, 포스웰 61, 인창원 170, POSRI 47, RIST 26건 접수	포스코 104(PT.PK 24, P-Mexico 10, P-Vietnam 7 등), 기타 그룹사 102건 접수	

평가 기준



- 현업 업무에서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실제 의미있는 임팩트를 창출한 사례(사회적 임팩트)
- 기존 업무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참신한 방법으로 기업시민 실천을 수행한 사례(창의성)
- 실천활동을 통해 당사뿐만 아니라 상대방, 지역사회와의 공존·공생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공생가치)

공모결과



- 총 110건의 우수사례(포스코 50건, 그룹사 50건, 해외법인 10건) 선정
- 포스코(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7건), 그룹사(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7건), 해외법인(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7건)

	부서명	분야	사례 제목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	B	[최우수] 납(Pb), CO ₂ 등 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흑연패삭강 개발 및 고객사 원가 경쟁력 향상 통한 공생가치 제고
	(포항) EIC기술부	B	[우수] 포스코·정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자생형 Smart Factory 구축
	(광양) 환경자원그룹	S	[우수] 관내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제철소 환경 Risk 저감
그룹사 	[건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11공구 현장	B	[최우수] 친환경 하이브리드 폴리머 활용 비산먼지 저감제 개발 및 적용으로 환경 Risk 저감
	[케미칼] 기업시민사무국	B	[우수] 지역 청년,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축로 기능인 양성교육 제공 및 취업지원
	[O&M] 건축사업지원실	B	[우수] 인테리어 사업 발생 폐자원 업사이클링(사회적기업과 협업) 후 기부
해외법인 	[인도] POSCO-India PC	B	[최우수] 저소득층 마을 학교 전력공급 Infra 제공으로 교육환경 개선, 당사/고객사 제품홍보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B	[우수] 「애심주방」 캠페인을 통한 대내외 기업시민 전파 및 당사 STS 제품 홍보
	[인니] PT.KRARATAU PSOCO	P	[우수] 제철소 내 녹화 개선작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납(Pb), CO₂ 등 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흑연페삭강 개발 및 고객사 원가 경쟁력 향상 통한 공생가치 제고

활동 배경

- 국내 납(Pb)페삭강 고객사는 월 10톤 미만 사용하는 영세업체가 다수(200개)로, 환경 정화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
- 선재 고객사들은 ‘산세-신선-열처리-신선-...’ 등 여러 공정을 반복 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공정들은 최대한 생략하면서도 제품 품질을 확보하여, 에너지 사용 및 CO₂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소재 이미지를 부각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신강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

활동 내용

- 고객사 근로자들의 중금속 중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납페삭강을 대체가능한 흑연페삭강을 개발/적용 확대(세아특수강 등 신선사 및 일흥정밀, 동현 테크노 등 13개 절삭가공사 대상, 기존 수입 중인 납페삭강 대비 절삭성은 동일한 반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없는 흑연페삭강을 개발, 고객사 테스트 완료 및 본격 양산 추진중)
- 고객사가 생산 중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열처리 및 신선 처리 생략이 가능한 공정 생략형 선재(비조질/초세립/세경) 판매 확대(열처리 및 신선 공정 생략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으로 고객사의 원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가공공정 시 발생하는 CO₂ 발생 억제로 환경 오염 예방)

실천 성과

-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한 상생 아이디어 도출로 상호 Win-Win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강종 판매를 통하여 철강이 대표적 환경오염산업이라는 이미지 쇄신

당사측면 : ❶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포스코 특화강종 개발/판매로 경쟁사 진입 장벽 강화

❷ 향후 흑연페삭강 제품 판매기반 확대

상대측면 : ❶ 고객사 현장근로자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로 작업 안전도 개선, 고객사 원가 경쟁력 향상을 통한 매출증대 기여

❷ 총 제조원가 절감

관련 CCMS 내용

p. 59 기업시민현장에는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하에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Virtuous circle)을 이루며 성장해야 합니다.

p. 42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재무적 동반성장 활동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지역 상생까지 활동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함께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흑연페삭강으로 생산한 다양한 제품





포스코·정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자생형 Smart Factory 구축

활동 배경

- 중소기업들의 Smart공장 구축의 어려움 해결하고자 POSCO, POSCO-ICT,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구축사업 VOC, 기술조사, 구축지원사업 조사 실시
 - 중소기업 VOC : Smart Factory 도입이 필요하나 구축비용 부담과 Smart 기술의 한계를 느낌
 - Smart 기술현황 : 포항제철소 전기실 설비이상감지 체계 구축성공(2019년 5월~)
 - 구축지원사업 : 포스코-중소벤처기업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Smart공장 구축사업 진행

활동 내용

- 민·관협력으로 1회성 Smart 기술 전수가 아닌 협력사 기술이관으로, 지역기업과 더불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기업시민 실천활동 수행
- 저가 IoT솔루션을 활용한 '지역산업 자생형 Smart Factory 기술지원'
 - 협업체계 구축: 포스코 그룹 및 중기부 간 기술·재정 지원 협업 체계 구축(~2020년 5월)
 - 솔루션 소개 및 연관기업 선정: 포스코 주관으로 연관기업 선정(2020년 7월)
 - Smart솔루션 기술전수: 포스코ICT 주관 협력업체에 솔루션 무료 기술전수
 - Smart공장 구축 사업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Smart공장 구축사업
 - 솔루션 구축: 협력업체 주관으로 지역기업과 계약 및 솔루션 구축(~2020년 11월 말)
 - 추가 구축계약: 지역기업에서 성능평가 실시 및 협력업체와 지역기업 간 자체계약

실천 성과

-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상생을 통한 강건한 Smart Factory 생태계 구축 : 경제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지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자립적 포항지역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은 물론, 포스코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 Smart공장 구축 시 기대성과 : ① 현대미포조선(이영산업) : LNG Fuel 탱크 구조물의 실시간 온도, 습도 측정을 통한 체계적 제품관리 및 안전확보, ② 남광포리마 : 고무롤(Rubber Roll) 주형기 실시간 온도측정을 통한 체계적 온도관리, ③ 한성수산 : 주요 식품보관 설비에 실시간 온도 측정을 통한 온도관리 체계 확보 및 유탕기 등 설비이상 예지

관련 CCMS 내용

p. 14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사 및 협력사와 함께 혁신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공동의 시너지를 통해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관내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제철소 환경 Risk 저감

활동배경

-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에서는 'With POSCO 실현'을 위해 '더푸른 환경에너지 재능봉사단' 창단
- 「대기환경보존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국비 보조금으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 환경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매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설치 시, 전문 시공업체에서 방지시설 설치 용량을 과다하게 선정하여 보조금 비용에 낭비가 발생

활동내용

- 관내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환경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제철소 합동 환경전문가를 구성 (4인 1조 현장실사 편성 : 광양시 환경과 2명, 환경자원그룹 2명, RIST 2명, 에어릭스 2명)
- 지자체에서 접수 완료한 관내 영세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에 환경컨설팅을 실시 (관내 태인 우리공업사 등 29개사,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환경 방지시설 컨설팅 내용(29개사업장/3일간 실사)

- 1단계 : 소규모 사업장 생산 공정 진단 : 온도, 유량, 연료 사용량, 공연비 등 현황 파악
- 2단계 : 연소조건 최적화 및 생산공정 영향 분석 : 배가스 유량 최소화
- 3단계 : 약취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링 진단 및 현장 검증
- RTO, 습식 스크러버 :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진단으로 투자비 및 운영비 산출
- VOC 저감 촉매 : 촉매 현장 평가를 통해 배가스 내 약취유발물질 제거 가능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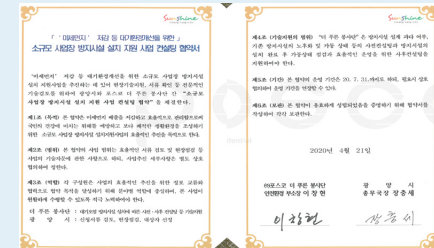
실천성과

- 당사측면 : 관내 지자체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 환경컨설팅 케어활동으로 제철소 환경관리 Risk 저감
- 상대측면 : ① 환경 방지시설 컨설팅 활동으로 신규 방지시설 설치 적정설계로, 시공비 저감
 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컨설팅 비용 저감
 ③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로 약취 및 미세먼지 저감(29개 방지시설 미세먼지 저감)

관련 CCMS 내용

p. 55 사회공헌은 단순히 봉사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공생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가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ESG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컨설팅 협약서



29개사 컨설팅 시트

사업장명	차량	취급 연대	배출연도 연대
광양제철소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제철부품 제철부품	100cc 이상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친환경 하이브리드 폴리머 활용 비산먼지 저감제 개발 및 적용으로 환경 Risk 저감

관련 CCMS 내용

활동 배경

-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호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업장 검찰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사례가 다수 발생
- 서부내륙 11공구는 대형 고속도로 현장으로 전체 11.98km 중 11.02km(92%)가 토공작업으로 비산먼지가 주 관리 대상. 당 현장은 R&D센터 인프라연구그룹과 협업을 통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폴리머를 활용한 비산먼지 저감제를 최초로 적용

활동 내용

- 현장 비산먼지 저감 방안 검토 및 R&D센터 인프라연구그룹과 협업 진행. 세계 최고 제품 대비 2.54배 이상 성능확보 완료 (2020년 2월~3월)
- 비산먼지 저감제 시범적용 관련 R&D센터 현장, 감리단 설명회를 실시(2020년 4월)
- 비산먼지 저감제 개발 진행 및 현장 적용 계획을 수립(2020년 5월~9월)
- 비산먼지 저감제 현장 시험 적용(2020년 9월 24일)
- 국토부 및 환경부 산하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초청 시연회 개최 예정(2020년 11월)

실천 성과

- 당사측면
 - ① 비산먼지저감제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으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 제고
 - ②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살수차 대비 효율 개선 50% 확보로 원가절감
- 이해관계자측면
 - ① 지역사회 : 도로 건설에 따른 먼지 피해 최소화
 - ② 듀라비이앤씨(주)/진웅화학(신규제품 개발로 인한 매출증대 및 판로확보)
 - ③ 주무관청 및 연구기관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Best Practice 사례 제시

※ 향후 국내 건설현장 및 제철소 야적장 등에도 확대 적용 가능

p. 23 “기업시민현장의 두 번째 실천 원칙은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구현에 앞장선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축로 기능인 양성교육 제공 및 취업지원

활동 배경

- 국내 유일 축로직업훈련원을 활용한 지역 청년 대상 축로 기능 교육 및 협력사 취업 지원

활동 내용

- 기업시민사무국 : 프로그램 기획·홍보·운영, 교육생 선발 및 취업지원, 포스코 노무협력실과 협업
- 인사혁신그룹 : 축로 전문 기술 교육 진행, 교육생 관리 및 평가, 수료생 직영 채용 검토
- 기간/대상 : 2020년 6월~10월, 축로업체 취업 희망자 25명(미취업 청년, 보호종료예정자, 고령 취준생 등)

실천 성과

- 전문 축로 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내화물 산업 생태계 강건화 주도
 - ① 국내 유일 축로 교육장 보유사로서 글로벌 내화물 업계 경쟁력 향상 및 기피 업종으로 인식된 축로업계 이미지 변화주도
 - ② 내화물 시공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력사 동반 성장 및 포스코 외 고객사 신규 수주 확대 추진
- 축로 품질 향상으로 협력사/고객사 공생가치 창출
 - ① 협력사 : 축로 기술 축적 및 신입사원 선발/교육 비용 절감, 내화물 시공 경쟁력 향상
 - ② 고객사 : 전문 인력 투입으로 공기 단축 및 제철소 조업 안정화
- 지역 청년 대상 축로 협력사 취업 지원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교육생 취업률 80%)
 - ① 교육생 선발 시 취약계층 우선 선발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협력사: 6명 채용 완료, 직영: 보호종료예정아동 1명 검토중)
 - ② 중장년층 및 일용직 인력의 축로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46세 교육생 축로社 취업 완료)
- 포스코 노무협력실 협업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시너지 창출
 - ① 포스코 그룹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공동 추진(동반성장, 청년 취·창업 지원)
 - ② 기존 프로그램 대비 교육 분야, 대상 확대로 교육 성과 향상 및 사회적 임팩트 확대(단독 운영 대비 예산 80%절감)

관련 CCMS 내용

p. 40 포스코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생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 발생 폐자원 업사이클링(사회적기업과 협업) 후 기부

관련 CCMS 내용

활동 배경

-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입지 종결 선언으로 쓰레기 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테리어 복구 공사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품 처리비용(약 1.3억원/년)을 절감하고, 소외이웃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필요성 대두

활동 내용

- 환경전문 사회적기업(터치포굿)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파트너십 구축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채널을 통한 소외이웃의 업사이클링 물품 신청 사연공모 실시 및 대상자선정
→ 총 29개소 : 인천장애인재활협회 연계기관 3개소, 장애인 가정 10, 사연공모 가정 16
- 사무실 원상복구 및 오피스텔 세대보수 공사 후 업사이클링 대상 폐집기 선별, 세척·보수·운송 직원 재능봉사
- 포스코그룹사 가구재능봉사단, 인테리어 사업 관련 협력사, 동종업계 Collaboration 연계 예정으로 사회적 임팩트 제고
- 활동성과 및 미담사례 등 스토리텔링 형식의 홍보영상 제작으로 대내외 배포(유튜브, 포스코투데이, 블로그 등)

실천 성과

- 수혜자(사연공모 신청자,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및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감사메시지 접수 등 미담 사례 창출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전파
- 업사이클 통한 폐기물 저감으로 환경보호 실천 및 폐기비용 절감(1.3억 원/년)으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
- 환경보전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에 성장기회 부여 및 사회적 영향력 제고
- 언론보도 총 87건(매일경제TV 등)

p. 24 폐기물 소각 및 매립 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원순환 패러다임을 적극 채택하여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p. 24 무엇보다 생산의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Reduce), 다시 사용하며(Reuse), 원료로 재활(Recycling)하는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소득층 마을 학교 전력공급 Infra 제공으로 교육 환경 개선, 당사/고객사 제품홍보

활동 배경

- 지역사회 : 델리센터 주변 마을들은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자체적으로 전력공급을 개선하기 어려움. 특히 좁은 공간에서 함께 수업받는 학생들은 45°C 이상 무더운 여름철 매우 잦은 정전으로 어두운 교실에서 선풍기 바람없이 수업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객사 : 인도 정부는 심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 가정의 지붕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나, 당사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며 적절한 홍보방법이 없어 성장하는 인도 친환경 시장에 진입이 불투명함(현재 판매중인 육상용 태양광 타워는 거래상대가 기업체이지만, 지붕용 태양광은 주요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로 판매대상이 완전히 달라 수요 개발이 어려움)

활동 내용

- 3개 학교(Patuhera 공립 고등학교, Gujar Majri 공립 중등학교, Balawas 공립고등학교)에 각각 5KW/Hour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학생들이 수업 중 전력중단 없이 전등, 천장팬,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모두 당사재 적용된 고객사의 제품을 사용함
 ↳ 태양광 구조물 : Purshotam 및 Green Strategy Servies社 /
 태양광 패널 : LG전자 인도법인(한국산 수입) / 강재 : PosMAC

실천 성과

부서명	이름	사례 제목
지역사회	당사 인근 저소득층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비 U\$ 2,627/년 절감 3개 학교 총 1,156명 학생, 65명 교직원에게 전력중단 걱정없는 교육여건 제공
	지역정부 및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 배출량 ▲ 28.8톤/년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주민 주거환경 개선(전력공급) 비용 U\$ 2,627/년 감축
당사	POSCO India PC (델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용 태양광 강재 14천톤/년 판매확대 기반 마련 고객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Witt POSCO 마케팅전략 실행가능성 검증
고객사	태양광 구조물 제작사 (Purshotam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지붕용 태양광용 U\$ 6백만/년 매출기반 마련 With POSCO 마케팅 활용, B-to-C 홍보기반 구축
	LG전자(신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태양광 신사업 진출 발판 마련(사전 홍보활동 전개)

관련 CCMS 내용

p.44 포스코의 신성장 사업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변화에 기반한 성장성과 인류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심주방」 캠페인을 통한 대내외 기업시민 전파 및 당사 STS 제품 홍보

관련 CCMS 내용

활동 배경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정부 및 주민들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시민 활동과 연계하여 법인 자체 생산 STS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상징성/지속성을 갖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

활동 내용

- 지역정부와 사업 취지에 대해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인근지역내 환경 및 위생이 취약하고 자립생활이 힘든 1호 빈곤가정 선정(개선 전: 장애인부부, 위생상태 불량, 거실/안방 등 주택 전반 개선 시급)
- 법인에서 보유한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주방 및 주택 환경 전반 개선 완료
- 현재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 대상 2호 애심주방 개선 진행 중(~10월 말)이며, 매 분기 1개 가정 지원을 통해 캠페인형 기업시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함

실천 성과

- 법인
 - ① 업의 특성을 활용한 기업시민 활동으로 당사 제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 가치 창출
 - ② 상징성 및 지속성을 갖는 캠페인형 활동 ...→ 기업시민 활동 지역정부/사회 공감대 확산
 - ③ 법인 유관부서 공동참여, 구성원 기업시민 동참 의지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지역사회/정부
 - ① 정부 중점추진사업에 외자기업이 자발적/선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정부-기업 간 성공적 협력사례로 활용, 타기업 동참 문의 증가
 - ② 지역내 위생관리가 취약한 빈곤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문명도시 홍보

p. 54 포스코의 사회공헌은 우리가 갖고있는 업무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지,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철소 내 녹화 개선작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활동 배경

- 포스코에서 정년퇴직한 후 인도네시아 Krakatau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
-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코크스오븐을 구현하겠다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 녹화 개선작업을 추진

활동 내용

- 코크스오븐 주변 공터 활용, 수준 높은 녹화 조성 및 쾌적한 휴식처 제공
 - ❶ 불모지 환경에서 친환경 코크스오븐 이미지 쇄신을 위한 혁신적인 녹화 개선 추진
 - ❷ 이원기 컨설턴트 주도하에 일과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조성
 - ❸ 직원 자율적 동참 및 아이디어 기반의 최소 비용 추진(제철소 주변 돌 활용 등)
 - ❹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 철학을 키워드로 한 '화초 레터링'으로 직원 마인드 향상

실천 성과

- 제철소 공장 내 최초로 차별화된 수준의 녹화 가든(Garden) 구현으로 친환경 이미지 제고
-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혁신적인 개선작업을 통한 직원 역량 및 마인드 향상
직원 자력에 의한 설비 성능 개선 및 우수 직원 배출

관련 CCMS 내용

p. 04 “우리 임직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People 측면에서 회사는 직원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직원은 기업시민의 구성원으로서 B/S/P 영역의 기업시민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모범시민으로서의 마인드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생활적 측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간 그리고 임직원 간 상호신뢰와 배려·존중에 기반하여 공정한 인사와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며, 업무에 몰입하되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발행인 송호근 기획·편집 손예령
발행처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디자인 더그라프
박현일·이승현
인쇄 가을기획
발행일 2021년 2월



주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4 포스코타워 13층 (06163)
E-MAIL ccri-postech@postech.ac.kr
대표번호 02-6951-6244
홈페이지 <http://ccri.postech.ac.kr/>